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50호 (2024-8)
발행일 2024. 7. 8.
ISSN 2092-7117

발행인 원장 직무대행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¹⁾

이원진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

-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각종 재난지원금과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 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01.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전후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몇몇 선행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했다고 보고하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혹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코로나19 이후에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빈곤 및 불평등이 증가하였음.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유자녀 여성 등의 소득·빈곤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음(남재현, 이래혁, 2020; 송상윤, 2021; 여유진 외,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백명호, 2022).

1) 이 글은 이원진, 함선유, 이주미. (2023).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제3장, 제4장, 제5장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 이와 같은 소득 감소 및 소득분배 악화 양상은 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집중되었으며,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었음(여유진 외, 2021, p. 254; 백명호, 2022, p. 20).
- 선행연구는 주로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하였으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가계동향조사는 월간·분기 소득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소득 충격을 빠르게 진단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코로나19 전후 중장기 소득분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수집한 연간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야 함.
- 특히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시기의 각종 재난지원금과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 수급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대응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함.

- 2016~2021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함.
 - 모든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고, 가구 내에서 합산한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여 개인 단위로 분석함.
- 코로나19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빈곤율이 1%포인트 증가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6~2019년에도 빈곤율이 매년 1%포인트씩 증가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에 빈곤율이 증가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이 글에서는 시점별 데이터를 결합하여 식 (1)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함. $D_{T=p}$ 는 p 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를, TRD 는 선형 추이를,²⁾ X 는 개인 특성 통제변수를 의미함.
 - β 와 γ 는 각각 코로나19 이전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한 코로나19 이후 2020년, 2021년의 결과변수 변화를 의미함.

$$Y = \alpha + \beta \times D_{T=20} + \gamma \times D_{T=21} + \delta \times TRD + \zeta \times X + \epsilon \quad (1)$$

2) 선형 추이는 연도에서 2016을 뺀 연속변수임.

〈표 1〉 결과변수 정의

구분		정의	비고
가구소득		• 가구 내에서 합산하고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절댓값/로그값)	• 연간 소득(만 원) •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2021년 기준 실질화
가구소득 빈곤		• 균등화 가구소득 빈곤선 미만 = 1 / 빈곤선 이상 = 0	• 빈곤선: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 ³⁾
가구소득 빈곤갭		• 빈곤층: (빈곤선 - 균등화 가구소득) ÷ 빈곤선 • 비빈곤층: 0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효과	소득 효과	• 〈균등화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로그값 - 〈균등화 시장소득〉 로그값	• 공적이전소득 항목: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재난지원금, 순 공적이전
	빈곤 효과	• 〈균등화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빈곤 - 〈균등화 시장소득〉 빈곤	
	빈곤갭 효과	• 〈균등화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빈곤갭 - 〈균등화 시장소득〉 빈곤갭	

주: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효과는 가구 내에서 합산한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활용하여 정의하였음. 순 공적이전은 총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뺀 값임.

02.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추이 및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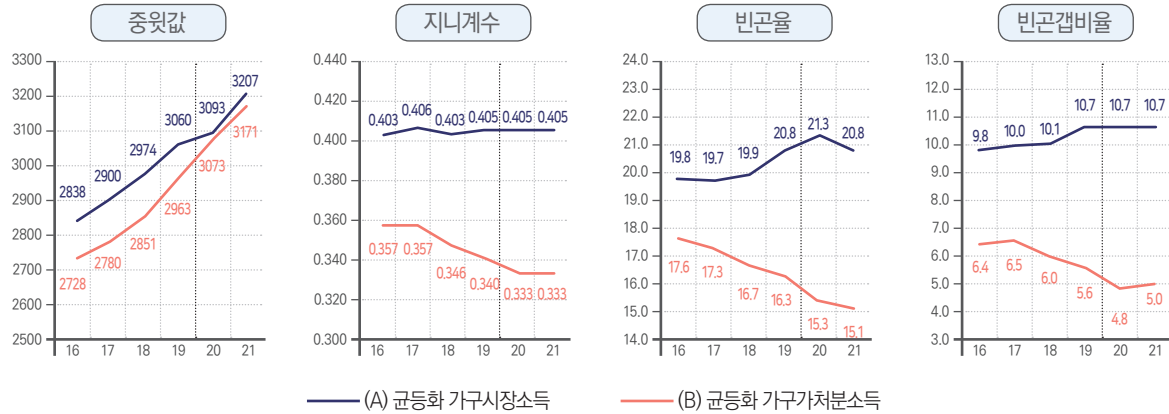
◆ 실제 표본의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시장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그림 1).

-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직후 시장소득 중위값 증가세의 단절이 관찰되었음.
 -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6~2019년의 시장소득 중위값 증가세가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시장소득 중위값이 감소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 2021년에는 시장소득 증가세가 회복되었으므로,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 단, 공적이전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추이에서는 2020년의 단절이 관찰되지 않았음.
 - 이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이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크게 완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줌.
- 한편,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직후의 단절을 뚜렷하게 보여 주지 않았음.
 - 2019~2020년 시장소득 빈곤율이 20.8%에서 21.3%로 증가하였으나, 2018~2019년에도 시장소득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인구·가구 구조 변화로 인한 중장기 시장소득 빈곤율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시장소득 빈곤율 변화를 구분하기 어려움.

3) 빈곤선은 2016년 1,364만 원/년, 2017년 1,390만 원/년, 2018년 1,425만 원/년, 2019년 1,481만 원/년, 2020년 1,537만 원/년, 2021년 1,586만 원/년이었음(2021년 실질,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20년 이후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중위소득과 빈곤선을 일정하게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빈곤선 추이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그림 1] 전체 인구 소득분배 추이, 실제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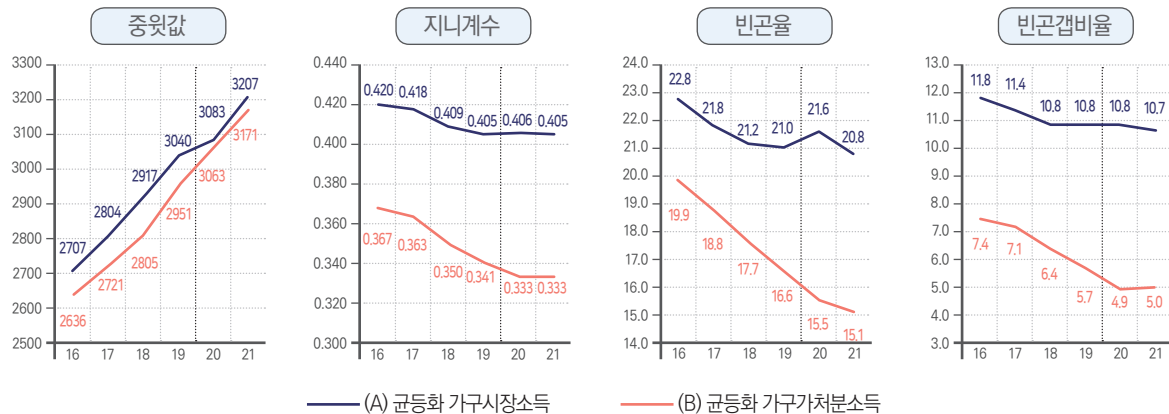
(단위: 중위값 - 만 원/년, 2021년 실질, 지니계수 - 포인트, 빈곤율/빈곤갭비율 -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10.23333/R.930001.001

[그림 2] 전체 인구 소득분배 추이, 재가중 표본

(단위: 중위값 - 만 원/년, 2021년 실질, 지니계수 - 포인트, 빈곤율/빈곤갭비율 - %)



주: 연도별 전체 인구의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가 2021년과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한 재가중 표본을 분석하였음.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10.23333/R.93000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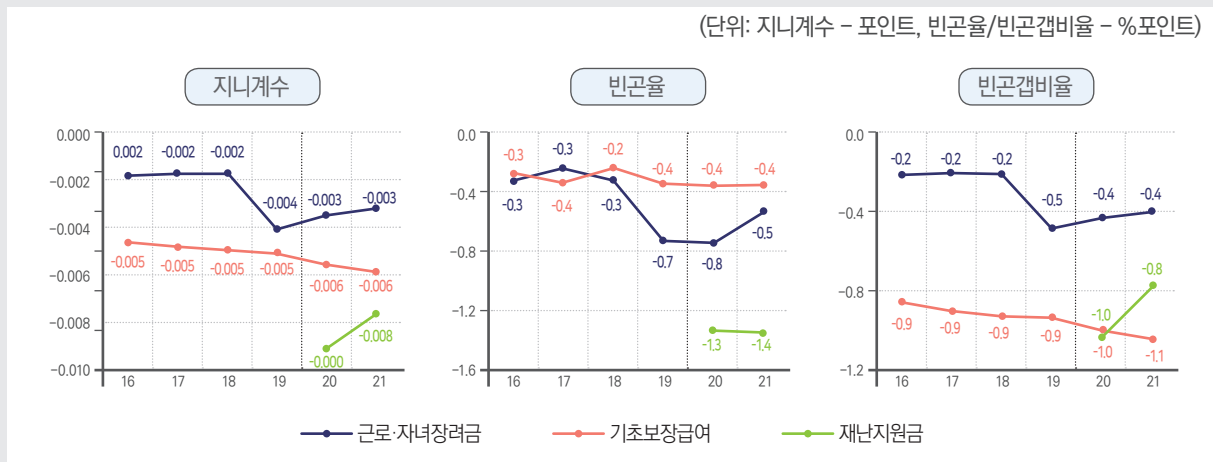
- ◆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를 통제한 재가중 표본의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시장소득을 감소시키고 시장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그림 2).

- 고령화 및 가구 소규모화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전체 인구의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가 2021년과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한 재가중 표본으로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였음.
-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를 통제한 결과, 시장소득 지니계수 및 빈곤율 감소세가 2020년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시장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단,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은 2021년에 완화되었음.
 - 한편, 코로나19가 가처분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는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음.

◆ [그림 3]에서 공적이전 항목별 분배 효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의 빈곤 및 불평등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함에 따른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항목별 분배 효과를 살펴보았음.
 - 예를 들어, 〈시장소득 +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갭비율과 〈시장소득〉의 빈곤갭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1년에 기초보장급여가 빈곤갭비율을 1.1%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2019년 연령·소득·재산 조건 완화 및 급여 인상으로 분배 효과가 크게 강화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2021년에 분배 효과가 소폭 약화되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체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분배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공공부조제도는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에 진입하면 급여가 지원되고 소득이 증가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면 급여 지원이 중지되므로,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경기 변동으로 인한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함.
 - 하지만 [그림 3]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보장급여의 분배 효과가 완만하게 강화되었음. 이는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정책적 변화가 기초보장급여를 확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3] 공적이전 항목별 분배 효과



주: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공적이전소득을 분석하였음.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분배지표에서 <시장소득> 분배지표를 뺀 값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10.23333/R.930001.001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빈곤 및 불평등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2021년 9월에는 전 국민의 88%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재난지원금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지급되었음.
 - 보편성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선별성이 강한 기초보장급여에 비해 지니계수 및 빈곤율 감소 효과가 컸지만, 대체로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조금 작았음.

◆ <표 2>에는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충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선형 추이 및 성, 연령, 교육 수준, 가구 규모를 통제한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음.
- 시장소득을 살펴보면, 2020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57만 원/년, 0.024 로그포인트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음.
 - 코로나19가 2020년에 평균적인 시장소득을 감소시켰으나, 이와 같은 시장소득 충격은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21년에 사라졌음.
 - 시장소득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가처분소득은 대체로 2020년과 2021년에 증가하였음.

〈표 2〉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 변화 및 공적이전 효과 변화

(단위: 빈곤·빈곤갭 - 포인트, 소득 - 만 원/년, 2021년 실질, 소득 효과 - 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2020년		2021년	
	식 (1) β		식 (1) γ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56.693	(28.868) *	10.691	(58.142)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0.024	(0.010) *	-0.012	(0.014)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8.070	(23.040) +	83.430	(46.904) +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0.017	(0.008) *	0.010	(0.011)
시장소득 빈곤	0.010	(0.004) **	0.005	(0.005)
시장소득 빈곤갭	0.002	(0.002)	0.002	(0.003)
가처분소득 빈곤	-0.002	(0.004)	0.002	(0.005)
가처분소득 빈곤갭	-0.004	(0.002) *	0.001	(0.003)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효과	-0.001	(0.001)	-0.003	(0.002) +
근로·자녀장려금 빈곤 효과	0.000	(0.001)	0.003	(0.001) *
근로·자녀장려금 빈곤갭 효과	0.001	(0.000) *	0.002	(0.000) ***
기초보장급여 소득 효과	0.006	(0.004)	0.010	(0.006)
기초보장급여 빈곤 효과	0.000	(0.001)	0.000	(0.001)
기초보장급여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1	(0.001)
재난지원금 소득 효과	0.102	(0.003) ***	0.090	(0.003) ***
재난지원금 빈곤 효과	-0.014	(0.001) ***	-0.014	(0.001) ***
재난지원금 빈곤갭 효과	-0.010	(0.000) ***	-0.008	(0.000) ***
순 공적이전 소득 효과	0.041	(0.007) ***	0.022	(0.010) *
순 공적이전 빈곤 효과	-0.012	(0.003) ***	-0.003	(0.004)
순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0.006	(0.001) ***	0.000	(0.003)

주: 식 (1)을 추정한 결과임. 괄호 안의 수치는 가구 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선형 추이 및 성, 연령, 교육 수준, 가구 규모를 통제하였음. + p<.10, * p<.05, ** p<.01, *** p<.001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10.23333/R.930001.001

- 2020년에 시장소득 빈곤은 1.0%포인트 증가하였고, 2020년에 가처분소득 빈곤 및 빈곤갭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2021년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빈곤갭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2020년 시장소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장소득 빈곤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이를 대체로 상쇄한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재난지원금 덕분에 공적이전이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하였음.
 - 재난지원금은 2020년 및 2021년 소득을 각각 0.102 로그포인트, 0.090 로그포인트 증가시켰고, 2020년 및 2021년 빈곤을 각각 1.4%포인트 감소시켰으며, 2020년 및 2021년 빈곤갭을 각각 1.0%포인트, 0.8%포인트 감소시켰음.

03. 한국복지패널조사 추가 분석: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

◆ <표 3>에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공적이전 항목이 더 자세하게 조사된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하였음.
 - 2019년 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2019 → 2020 및 2019 → 2021 균형패널 표본을 구축하고, 각 표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분석함.⁴⁾
- $t \rightarrow t + 1$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⁵⁾
 - 전 시점을 T1, 후 시점을 T2로 표기할 때, T2 값에서 T1 값을 뺀 결과변수 전후 차이를 분석함. 결과변수의 정의는 <표 1>과 동일함.
 - 분석 단위는 t와 t + 1의 2개 시점을 조합하여 1개의 인년(person-year)으로 정의함.
 - 결과변수를 Y, T1이 2019년이면 1이고 2018년 이전이면 0인 더미변수를 $D_{T1=19}$, 선형 추이를 $TRD^6)$, T1을 기준으로 측정한 통제변수를 이라 할 때, 식 (2)를 회귀분석 하여 코로나19 전후 결과변수 변화를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을 통제하여 추정할 수 있음.

$$\Delta Y_{T1 \rightarrow T2} = \alpha + \beta \times D_{T1=19} + \gamma \times TRD + \delta \times X_{T1} + \epsilon \quad (2)$$

- 고용보험급여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음.
 -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고용보험급여 빈곤갭 감소 효과가 2019~2020년에 0.3%포인트, 2019~2021년에 0.2%포인트 증가하였음.
-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1%포인트 감소하였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량이 감소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5%포인트 증가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0년 이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인상 등과 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의 시행이 코로나19 유행기와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일정하게 완화하였음.

4) 19 → 20 변화를 분석할 때는 15 → 16, 16 → 17, 17 → 18, 18 → 19 변화와 비교하고, 19 → 21 변화를 분석할 때는 15 → 17, 16 → 18, 17 → 19 변화와 비교함.

5) $t \rightarrow t + 2$ 변화의 분석 방법은 전후 시점의 차이가 2년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함.

6) 선형 추이는 T1 = 15인 인년에 0을 부여하고 1년마다 1을 더한 연속변수임.

-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빈곤 및 빈곤갭 효과 변화가 매우 작았음.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조건을 완화하면서 소폭 확대되었지만, 수급 규모가 작고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음.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증가 효과,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가 분명하게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되었음.

〈표 3〉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변화

(단위: 빈곤·빈곤갭 - 포인트, 소득 - 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9 → 20	19 → 21	구분		19 → 20	19 → 21
		식 (2) β	식 (2) β			식 (2) β	식 (2) β
고용 보험 급여	소득 효과	0.010 **	0.005	긴급 복지 지원	소득 효과	0.001	-0.001
	빈곤 효과	-0.004	-0.004		빈곤 효과	0.000	0.000
	빈곤갭 효과	-0.003 **	-0.002 +		빈곤갭 효과	0.000 *	0.000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 효과	-0.003 **	-0.006 **	재난 지원금	소득 효과	0.092 ***	0.071 ***
	빈곤 효과	0.001	-0.001		빈곤 효과	-0.010 ***	-0.010 ***
	빈곤갭 효과	0.000	0.001 **		빈곤갭 효과	-0.010 ***	-0.008 ***
기초 보장 급여	소득 효과	0.012 +	0.019	순 공적 이전	소득 효과	0.039 *	-0.019
	빈곤 효과	-0.003	0.001		빈곤 효과	-0.021 **	-0.023
	빈곤갭 효과	-0.001	-0.005 **		빈곤갭 효과	-0.004	0.009

주: 식 (2)를 추정한 결과임. 원가구 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음. 통제변수는 성, 연령, 교육 수준, 가구 규모임. 순 공적이전은 총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뺀 값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https://www.koweps.re.kr>

04. 시사점

◆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과 소득보장제도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대체로 고용보험급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여 소득 하락 집단을 지원하는 역할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음.
-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시장소득 빈곤의 증감에 대응하는 자동안정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수급 규모가 작아 소수 극빈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해도 대규모 경제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내 이차소득자와 같이 가구의 경제적 지위는 낮지 않지만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가 하락한 집단을 지원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음.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긴급한 일시적 지원을 위한 보편적 지원 방식에 따른 정책의 재정적 누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비정형·비공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구인회 외, 2021; 이병희 외, 2023).
- 근로시간 감축과 불완전 취업에 대응하는 부분실업제도, 재정 지원 일자리의 질 확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 안전망 강화, 보편적 상병수당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함.

〈참고문헌〉

- 구인회, 김진현, 우해봉, 홍민기, 김동진, 김건. (2021). **소득기반 사회보험 구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남재현, 이래혁. (2020).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종사상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4), 215-241.
- 백명호. (2022). 팬데믹과 경제 불평등: 가구소득과 임금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45, 5-47.
- 송상윤. (2021).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2021-9.
-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김을식, 김양중, 남종석, 김문길, 이원진, 우선희, 손창균, 노법래, 송치호, 허재준, 문현경, 박희석, 노승철, 송치호, ... 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병희, 강신욱, 김문정, 성재민, 강희정, 류재린, 박종식, 고창수, 김혜원, 이승호, 오상봉, 이다미, 송창길, 고숙자, 여나금, 이재은. (2023). **소득기반 사회보험 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승호, 홍민기. (2021).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 28(3), 17-44.
- 이원진, 함선유, 이주미. (2023).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https://www.koweps.re.kr>